

지난 9월 21일 세계 치매의 날을 맞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9년 8월말 현재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25만 1천여 명으로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8.3%에 해당한다.

연구원은 이 자료를 통해, 치매 환자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증가한다면 2005년 35만 1천여 명, 2010년 44만 명, 2020년엔 62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매보다는 “노망“ 혹은 “망령“이라는 속칭으로 더 익숙했던 이 병은 여느 질환보다도 주위 가족들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 주며, 지속적인 지능 저하와 정신 기능의 저하로 점차 인격을 상실해 가는 참혹한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원인 및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불가피한 노화 과정의 한 단계로 여겨져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의 가정에 그 책임이 전가되어 왔다.

그러나 보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치매 환자의 발생은 급증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서구 사회에서는 치매가 이미 주요 사망 원인 중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마련이고 사람의 정신작용 또한 노화의 과

한방으로 보는 성인병

치매의 한방치료

이진화

부평한방병원장

정을 겪는다.

생리적인 정신 노화는 지능의 감퇴 속도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반면 병적인 정신 노화에서는 그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적이고 정신 기능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손상되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생리적인 정신 노화는 일반적으로 건망증이라고 불리는데,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인격의 황폐화도 나타나지 않아 병적 노화 즉, 치매와는 구별된다.

한의학에서는 치매를 기본적으로 인체가 노화해 가면서 나타나는 병리 현상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권위 있는 한의학 서적인 황제내경에는, “사람은 50세에 간장(肝臟)의 기운이 쇠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60세에 심장(心臟)의 기운이 쇠하여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70세에 비장(脾臟)의 기운이 쇠하여 피부가 건조해지고 80세에 폐장(肺臟)의 기운이 쇠하여 혼백이 떠나므로 말을 해도 생각과 다른 헛말이 나오고 90세에 신장(腎臟)의 기운이 쇠하여 신체가 공허해지고 100세에 오장(五臟)이 다 허하여 정신 기능은 약해지고 몸은 껍데기만 남는다”라고 하여 50대 이후에 오장의 기능이 쇠약해지면서 노화 작용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정신 기능이 쇠퇴해 간다고 기술하였다.

즉, 정신 기능의 쇠퇴는

기본적으로 노화에 의해 오장의 기능이 허약해짐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 환경의 급격한 변화, 감정의 자극 등의 영향으로 간장(肝臟)의 기운이 울체(鬱滯)되고 담(痰)이 발생되어 사람의 사유 활동을 주관하는 심장에 영향을 주어 치매가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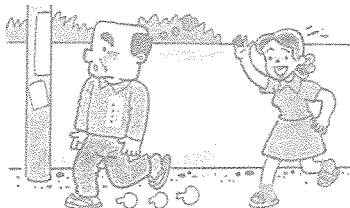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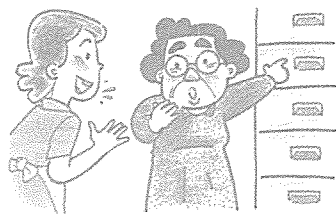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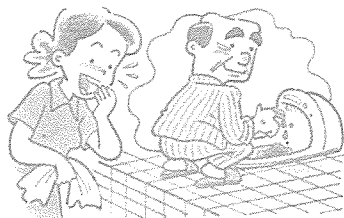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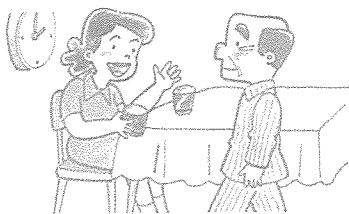
비록 치매의 원인이 현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전신 상태, 성격, 증상, 증후, 장부허실, 체질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인체 부조화의 유형을 밝히고 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치매를 치료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치매의 정의, 원인, 증상, 예방법 및 한방 치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란 뇌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인해 신경세포나 조직이 파괴됨으로써 정신 기능의 장애와 지속적인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이 상태에서는 기억장애, 지남력 장애, 계산력 장애를 수반하는 지능 장애가 나타나고 그 정도는 계속해서 진행된다.

심해지면 방금 일어났던 사건이나 바로 전에 들었던 것도 완전히 잊어 버리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잘 잊어



버린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도 없어진다. 사고력의 저하와 주위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이나 정확한 대응이 어렵게 되고 점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힘들게 된다.

2. 치매의 원인

치매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기타 이차성 치매로 나눈다.

노인성 치매는 확실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증가해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화 현상이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

팔, 다리의 근육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위축되어 가늘어지는 것처럼 의욕을 상실한 채 일정한 기간 머리를 쓰는 일이 없으면 뇌의 위축이 일어난다. 정상인에서는 뇌의 평균 질량이 남자 1,350g, 여자 1,250g이지만 60세 이상 노인에서는 평균 100g이 감소한다.

노인성 치매 환자에서는 정상 노인에 비해 다시 100g 이상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러한 뇌의 위축은 CT나 MRI 등을 이용한 뇌 사진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노인성 치매의 원인은 노화에 따른 뇌의 퇴행성 변화(노화현상)와 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뇌의 폐용성 위축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혈관성치매는 고혈압, 당뇨병 등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질환들은 뇌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동맥들을 좁아지게 하거나 막히게 하여 뇌의 혈액 흐름을 저해한다.

뇌혈관에 전반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뇌경색을 일으키게 되면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되어 치매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혈관성 치매는 다발성 경색성 치매라고도 불리어 진다.

기타 경막하 혈종, 정상압

수두증, 뇌종양 등 뇌의 병변과 갑상선 기능저하증, 비타민B 결핍, 알코올 중독 등의 전신성 질환에 의해 유발되는 이차성 치매가 있는데 그 비율은 높지 않다.

3. 치매의 증상

치매는 진행 상황에 따라 전치매, 경중치매, 중중치매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은 마치 노인이 어린아이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전치매 상태에서는 지능이 어른 이하의 수준으로 저하되고 경중 치매까지 진행하면 점점 7세, 6세, 5세의 수준으로 저하된다. 중중 치매가 되면 지능이 4세 이하까지 퇴보하여 공간, 시간의 인식 즉, 지남력이 없어지고 인격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

전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① 의욕, 호기심의 저하, ② 무표정이나 무감동의 경향, ③ 기명력 장애(최근의 일들을 잊어 버리기 쉽다), ④ 이야기가 장황하고,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함 등이다.

경중 치매의 증상은, ① 어제 일어난 일 등을 모두 잊어 버림, ②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불확실해짐, ③ 쉬운 계산도 틀림, ④ 가족의 이름을 틀리거나 잊어 버림, ⑤ 외출 후 자기 집을 못 찾아옴, ⑥ 감정 조절을 못함(갑자기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한다), ⑦ 피해망상(돈이



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 맞았다고 착각함), ⑧ 자기 주변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음 등이다.

중중 치매의 증상은 지능이 4세 이하로 퇴보한 상태를 상상해 본다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 상실, ②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배변 등을 스스로 못함, ③ 아무 계획 없이 그때그때 행동함, ④ 무엇이든지 입에 넣으려고 함, ⑤ 식욕 향진 및 몇 번이고 식사를 하려 함, ⑥ 의미 없이 배회함, ⑦ 한밤중에 일어나서 떠들고 괴성을 지름, ⑧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음, ⑨ 대소변을 자주 지르고 대변을 벽에 바르거나 먹거나 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한다. ⑩ 뇌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내장 기능이 쇠퇴하고 식물 인간처럼 계속 누워 있는 상태가 된다.

4. 치매의 예방과 한방치료

일단 중중 치매가 되면 어떤 치료를 해도 본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중중 치매의 경우 비가역적인 뇌의 위축으로 인해 지능이 심각하게 저하되며, 환자 자신이 혼련이나 치료의 의미를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매의 치료에서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전치매 단계에서, 늦어도 경중 치매 단계에서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노인성 치매의 증상은 어느 사이엔가 나타나서 서서히 진행해 간다. 무심코 알아차리지 못한 채 수 년씩 경과해 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노인성 치매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 그러므로 노인에게서 전술한 이상 증후가 나타날 경우에는 바로 적절한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뇌는 정신이 간직되어 있는 곳으로 오장의 기능이 왕성하면 머리에 뇌수(腦髓)가 충만하여 신체 동작이 가볍고 힘이 있으며 정신 활동이 충명하다”고 하였다.

사람이 나이 50세를 넘어 오장육부의 기능이 점차 쇠퇴해지면 기혈(氣血)이 부족해져서 뇌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할 뇌수 역시 부족해진다.

이에 따라 정신이 점차 흐

러지는데 여기에 급격한 정신적 자극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엔 뇌가 일시에 손상을 받아 치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오장 중에서도 특히 생식과 정력을 담당하는 신장(腎臟)은 정(精)을 간직하여 뇌수(腦髓)를 자양(滋養)하는데 신장의 기능이 쇠퇴할 경우 머리에 뇌수가 충만하지 못하여 정신 작용이 쇠퇴되고 정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성욕, 재물욕, 명예욕 등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젊어서 지나치게 주색에 탐닉하거나 체질적으로 신장이 약한 사람이 섭생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신장이 일찍 쇠약해져서 나이 60세가 못되어 치매가 발병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장의 정기를 보강하는 환소단(還少丹) 류의 보약을 투여하여 정력을 일으키고 의욕을 돋구며 뇌수를 충만하게 하여 회복을 도모한다.

치매가 호발하는 연령층이 바로 정력이 쇠퇴하여 의욕이 사라지고 정신적으로 우울해지는 시기이며,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치매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욕이 왕성하고 지속적으로 성생활을 하며 은퇴하지 않고 계속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에서 치매 발생률이 낮은 점 등을 지켜보면 신장과 정력의 보강을 통한 치매 치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비위의 허약으로 인해 발생한 담음(痰飲)이 정신 활동을 주관하는 심장을 침습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소 소화기능이 떨어져서 기가 허한 부류의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세심탕(洗心湯) 류의 처방으로 담을 제거하고 비장을 보강하는 치료를 도모한다.

만일 간장에 울화(鬱火)가 있어 심장과 간장의 음혈(陰血)이 모손된 경우에는 세심탕(洗心湯)에 당귀, 백작약, 단삼, 맥문동, 천화분 등을 가미한 전매단(轉呆丹) 류의 처방을 활용한다.

평소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불안하며 가슴이 뻘, 건망증 등이 있으며 매사에 결단력이 부족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심장과 담(膽)의 기능이 약한 것으로 이러한 사람에게서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비탕(歸脾湯), 온담탕(溫膽湯) 류의 처방으로 심장과 담을 보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치매와 같이 뇌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예민하고 쉽게 화를 내며 감정 변화가 많다. 자신의 지적 능력을 벗어나는 상황에 닥치면 스스로 분노에 못 이겨 쓸데 없는 고집을 부리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파국 행동은 심장에 화가 쌓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는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 류의 처방으로 심장의 화를 제거하면 정신이 안정되고 발작이 소실된다.

근래에는 사상 체질 의학에 입각한 치매의 치료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종종 기대 이상의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 치매 치료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난치병이다. 일단 발생하면 아무리 훌륭한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

항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욕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고, 꾸준한 운동, 활발한 취미 활동, 사고 활동과 항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치매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치료라고 할 수 있다. [7]